

■ 노포만담 - 부암동 굴다리슈퍼

오래된 흑백 사진 풍경 같은 마을을 서면에서 만났다

“원래 하시던 어르신이 건강 때문에 가게를 그만두셨어요. 그때 제가 가게를 인수했는데 올해 9년째네요. 어르신이 한 30년 정도 가게를 운영하셨다고 알고 있어요. 그 전에 다른 분이 여기서 장사를 하셨다는데, 아마도 그렇게 치면 이 가게가 한 50년 가까이 되지 않겠어요?”

가게는 굴다리 바로 입구에 붙어 있다. 굴다리 옆에 붙은 가게라 ‘굴다리 슈퍼’다. 말이 슈퍼지 동네 점빵 분위기다. 자그마한 2층 건물에 1층은 가게, 2층은 살림집으로 쓰고 있다. 마치 오래된 흑백 사진을 보는 듯한 낡고 오래된 풍경은 이곳이 서면이라는 것을 잊게 한다.

서면에서 만나는 호젓한 골목길 풍경

‘굴다리 슈퍼’는 부암동 철길마을 안에 있다. 철도와 고가도로가 지나가는 마을로 들어가려면 대부분 굴다리를 통과해야 한다. 굴다리 철길마을도 그렇다. 굴다리는 부전1동과 부암1동을 가르는 경계다. 경계 안에는 빛과 어둠이 공존한다. 굴다리 안은 어둠의 공간이다. 어둠의 저편, 굴다리 밖은 빛의 세계다.

서면 변화가를 조금 벗어났을 뿐인데, 걸어서 10분 거리에 굴다리 너머로 펼쳐지는 풍경은 방금 전까지 본 화려함과 사뭇 다른 분위기다.

굴다리는 낮고 좁다. 승용차나 소형 트럭 한 대 겨우 지나갈 정도다. 버스나 큰 차는 엄두도 못 낸다. 그래서 이 구간은 일방통행이다. 속도도 내지

못해서 굴다리 슈퍼는 마치 ‘쉬어가는 페이지’ 같다.

3면이 다 막다른 골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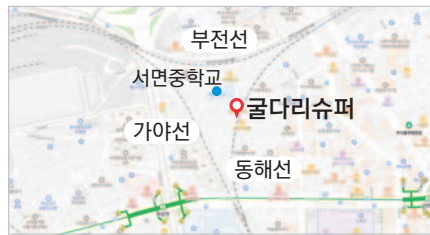
마을 안은 좁은 골목이 미로처럼 이어지지만 결국은 막다른 골목과 만난다. 가야선과 동해선, 부전선 철길이 마을을 삼각형으로 에워싸고 있다. 그래서 부암동 철길마을을 드나들 수 있는 통로는 굴다리 세 군데다. 마치 천혜의 요새 같다.

“여길 지나다니는 분들은 대부분 마을 주민들이죠. 외출하려면 어차피 지하철이나 교통편이 서면 쪽이 많으니까 여기를 지나가는 게 편하죠.”

결혼 후 들어와 여기서 신접살림을 차리고 눌러산 것이 벌써 23년째라는 굴다리 슈퍼 사장이 가게 밖에 나와서는 말을 전한다.

마을은 한가하고 조용하다. 굴다리 위로는 기차가 덜컹거리며 지나가고, 외출하고 돌아오는 차림의 사람들이 굴다리를 빠져나와 불현듯 생각난 듯 굴다리 슈퍼로 들어가는 모습은 일상처럼 자연스럽다.

이런 모습을 안도현 시인은 “지아비가 끌고 지어미가 미는 과일 손수레도/ 밝은 세상 가자고 부지런히 뺨겨 덕겨린다/ 징징거리며 앞지르는 오토바이, 막노동꾼과 공무원도/ 단발머리 여학생 몇몇과 노인도 모두 섞이어/ 간다, 이렇게들 수십 년 지나갔으므로 / 역사는 기록될 수 있었다”라며 굴다리를 오가는 서민들의 일상과 삶을



노래했다. -이리역 굴다리 중에서-

피난수도 부산 흔적 간직한 마을

부암동 철길마을이 지금의 모습으로 자리 잡은 것은 한국전쟁 이후로 추정한다. 부산으로 몰려든 피란민들은 빈 땅이면 어디든 판잣집을 지었던 시절이다. 철길 옆이라고 예외는 아니었다. 게다가 중학교가 있다면? 마을 한복판에 위치한 서면중학교는 부암동 철길마을의 역사를 가늠할 수 있는 단서다.

서면중학교는 1948년에 성지중학교로 개교했다. 1976년에 서면중학교로 이름을 바꿨다. 굴다리 슈퍼 쪽에 있는 단층 건물이 1953년에 지은 교사(校舍)고, 현재 사용 중인 4층 건물은 1966년에 지었다. 둘 다 근대문화유산급으로 오래된 건물들이다. 올해 75회

졸업생을 배출한다. 세월이 흐르면서 부암동 철길마을 판잣집들이 슬래브 지붕으로, 2층 주택으로, 다세대 주택으로 바뀌었지만 서면중학교 담장과 철도를 따라서 형성된 골목의 선은 거의 그대로다. 마을은 피난수도 부산의 흔적이다.

그냥 거기, 그렇게 있었던 것처럼

그냥 거기 있었다는 것. 굴다리 슈퍼가 그렇다. 그 시각에 기차가 지나가듯 슈퍼는 그냥 오늘도 문을 열고, 내일도 열 것이고, 그게 전부다.

기차가 지나갈 때 기차길 옆의 집 창문은 흔들릴 것이고, 밤이면 기차 소리에 잠을 설치기도 할 것이다.

이제는 아무도 두레박으로 물을 길어 올리지 않는 골목 안의 마을 공동 우물처럼 골목 담벼락에는 세월의 흔적이 커커이 쌓여만 간다.

백화점과 지하상가, 먹자골목, 화려한 불빛들... 도시가 보여주고 싶은 얼굴이다. 서면은 이런 얼굴로 기억되고 싶은 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부암동 철길마을과 굴다리 슈퍼는 서면의 화려함 뒤에 감춰진, 지금껏 몰랐던 서면의 또 다른 얼굴이다. 도심 변화가에서 10분 거리에 1,000걸음도 되지 않는 곳에 이런 공간이 있구나!

부암동 철길마을과 굴다리 슈퍼는 서면의 속살을 지키는 것들이다. 그렇기에 도시가 숨겨 놓은 다양한 얼굴과 흥미로운 스토리를 찾아가는 여정은 즐겁다. 글. 원성만

법률상담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을 나눠줘야 하나요?

Q A씨는 자녀로 B씨와 C씨를 두고 있었는데, B씨는 A씨의 다툼으로 인해 연락을 끊은 후 수십 년 동안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C씨는 건강이 좋지 않아 자녀의 도움이 필요한 A씨를 위해 B씨에게 도움을 요청하였는데, B씨는 부양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하면서 병문안조차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B씨는 A씨가 사망하자 갑자기 찾아와 자신의 상속분만큼 상속재산을 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B씨에게 상속재산을 나눠줘야 하나요?

A 기존 상속 관련 규정은 혈연 관계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

현실과는 맞지 않는 부분이 발생하자 국민 정서를 반영하여 가족 간의 의무·기여 정도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많은 내용이 개정되었습니다.

1. 상속권 상실 선고 대상 확대
중전 민법에서는 부양의무 위반에 대해 상속권 상실 선고를 할 수 있었지만 직계존속이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는 경우 할 수 있는 등 일부 제한이 있었습니다. 이에 개정된 민법에서는 직계존속, 직계비속, 배우자 등 모든 상속인이 상속 상실 선고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배우자의 대습상속에 대한 변화
중전에는 상속개시 전에 상속결격 시 배우자가 대습상속을 받을 수 있었

으나, 상속인과 배우자가 경제적으로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경우 등 부당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상속결격이 된 사람의 배우자는 대습상속을 받지 못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3. 기여 보상 명목의 증여·유증 개정
증여나 유증이 상당한 기간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행해진 때에는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을 수 있어 피상속인에 대해 기여한 상속인은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유류분 반환 방식의 변화
중전에는 유류분 반환 시 재산 자

체에 대한 반환이라 상속인 간에 부동산 공유 등으로 다툼이 이어지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개정된 민법에서는 유류분 반환 시 가액 반환을 원칙으로 하여 공유 지분 등으로 인한 분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위 사례의 경우 B씨는 A씨에 대해 상당한 기간 고의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였다고 볼 수 있고, C씨가 B씨에 대한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B씨는 상속권 상실 선고에 따라 상속권이 상실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소현우(법률사무소 성을 대표변호사)